

## 뉴욕 연합감리교...동성애자 성직 임명 허용

### 교단법 무시한 뉴욕 연합감리교회 후보 평가 시 성적체성 고려하지 않을 것

뉴욕 연합감리교회가 '독신이 아닌 동성애자'에 대해 성직 임명을 금지한 교단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욕 안수목사이사회 총회(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s Board of Ordained Ministry)는 1일 성명을 내고 '목사이사회

(Board of Ordained Ministry, 이하 BOOM)가 목사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성적체성과 성적지향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BOOM은 동성과 결혼한 사제의 사역을 관찰해 왔다. '성과 상관 없이 결혼한 이들'을 차별한다거나 '동성결혼을 희망하는 이들'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 말했다.

성명서의 주요 서명인이자 총회 회장인 윌리엄 B. 프폴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성명서 발표는 동성결혼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과 회의를 거쳐 지난 2월 20일 이에 대해 비밀투표를 한 결과, 이사회는 다수가 이번 결정을 지지했다. 프폴 목사는 "어떤 후보자에게도 배우자와의 친밀성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주류 개신교단들과는 달리,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는 죄이며, 결혼은 오직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성립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공동체나 문화권에서 온 지도자들이나 회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연합감리교회 규례서는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자들에게 사제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규례서에는 "성직에 임명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며 "동성애적 삶은 기독교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성직자 후보, 목사, 봉사자로서의 자격에 맞지 않다"고 돼 있다.

지난달 볼티모어-워싱턴 목사이사회 총회는 "결혼한 레즈비언을 서리집사로 추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례서에 기록된 안수 방법을 비롯해 동성애와 관련된 안건들은 오는 5월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1. 자신의 잘못을 무시한다.
2. 자신의 강점에만 초점을 두고 자신의 약점은 무시한다.
3.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4.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
5. 관계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
6.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사람들에게서 주목받기에만 집중하며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만 급급하다.
8. 항상 뽐낼 기회만 엿본다.
9. 자신의 영광만 취하려 한다.
10.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 거의 없다.
11. 복음을 전하기 보다는 충고와 조언을 더 열심히 한다.
12.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민감하다.



뉴욕 연합감리교회.

## 美연방대법원 동성커플 친권 인정 판결



연방대법원 ©Roman Boed/ www.flickr.com/ CC

美연방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및 양육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앨라바마 대법원은 생모(生母)와 양모(養母)로 구성된 레즈비언 커플이 헤어지며 발생한 자녀 양육 갈등에서 생모의 편을 들어주었으나 연방대법원은 7일 이를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앨라바마 주에 거주하는 이 레즈비언 커플은 1995년부터 동거했으며 동거 기간에 한 여성이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당시는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할 수 없었고 당연히 부부로서 입양할 수도 없었

다. 그래서 이들은 잠시 조지아 주로 가서 공동부모입양을 했다. 영어로 Second Parent Adoption 혹은 Co-parent Adoption이라고 불리는 이 입양은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동성 커플의 입양을 위한 절차로 미국 내 약 3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통 입양에서 원래 부모는 입양과 함께 부모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양부모에게 내어주게 돼 있다. 그러나 공동부모입양은 원래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부모에게도 친권자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으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위해 고안된 방식이다.

그런데 이 커플이 2011년 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모인 여

성은 자신이 낳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전 파트너이자 양모인 여성이 자녀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앨라바마 주 법원에 요청했다. 앨라바마 대법원은 지난 9월 조지아 주가 양모에게 공동 친권을 부여한 것이 잘못이라 판단하고 생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친권을 가진 양모가 자녀를 만나는 기회가 차단되는 안 된다며 앨라바마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각 주는 타 주의 판결에 담긴 논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에 담긴 가치가 잘못됐다 여기더라도 그 판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앨라바마 주는 충분한 신뢰와 신용(full faith and credit)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표현은 각 주가 다른 주의 법이나 법적 기록, 재판 절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무에 관한 법적 표현이다.

이 판결로 인해 이제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반대하더라도 타 주에서 인정받은 입양이라면 각 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게 됐다. UCLA 법대 내의 윌리엄스 재단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동성 부모를 둔 입양 어린이는 6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및 양육 권리에 대한 것 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미국 내 법 절차에 대한 판결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서는 동성 커플에 대한 논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나라오토먼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100% 천연성분 FDA IND임상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6일 늘푸른선교교회(담임 안창훈 목사·앞줄 정중앙)가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 “십자가 능력 의지하는 직분자되길”

늘푸른선교교회 임직감사예배... 노연태 장로 등 6명의 직분자 세위

늘푸른선교교회(담임 안창훈 목사)가 6일 주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노연태 장로 등 6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안창훈 담임목사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격없음을 고백하고 나누는 모습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직분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권면했다. 이날 누가복음 15장 11-3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안목사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 느덧 첫째 아들처럼 형제의 흠과 죄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면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임직식에서 임직자 소개와 서약, 안수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노연태 장로, 마이클 김 안수집사, 권양선, 노순희, 안경원, 유숙호 권사가 임직했다.

축사를 전한 최동욱 선교사(늘푸

른선교교회 파송 선교사)는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하나되어야 한다. 완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요,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라”고 전했다.

안목사는 “귀한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리고, 앞으로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늘푸른선교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인규 기자

### “미주장신 ATS정회원 후보 자격 취득”

내년 6월 경 정회원 자격 취득 예정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지난 2월 2일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 후보 자격을 취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따라서 2017년 초 실사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미주장신은 내년 6월 정회원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장신 측은 “북미의 우수한 신학대학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양질의 신학 교육과 한국교회가 지닌 맑고 역동적인 영성을 조화롭게 통합한 선교적 신학교로 도약해 가

겠다”고 밝혔다.

ATS는 크게 3단계로 인가 절차를 두고 있다. 준회원(Associate Member), 정회원 후보(Candidate for Accredited Member), 정회원(Accredited Member)이다.

현재 한인 신학교 가운데 ATS 정회원인 학교는 월드미션대학교와 웨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뿐이며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정회원 후보, 미성대학교는 준회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형 기자



미주장신대의 2015년 제35회 졸업예배 모습.

### “새언약학교, 인터내셔널데일로 세계 만나”

기독교 사립학교인 새언약학교(NCA, New Covenant Academy)가 4일 인터내셔널데이(International Day) 행사를 열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와 음식, 춤 등 문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를 연 학교 측은 “넓은 세계를 알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움으로써 여러 민족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동질감을 심어 주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수주 전부터 인터내셔널데이를 준비한 교사 헬렌 박 씨는 “나라는 다르지만 전 세계를 하나로 축복하며 축제를 개최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킨더는 아프리카 가나, 1학년은 남미 브라질, 2학년은 아시아 중국, 3학년은 유럽 프랑스를 선택해 그 나라의 언어와 음식, 춤 등을 소재로 발표했다.

한편 학교 측은 매년 인터내셔널 데이를 열어 학생들이 더 많은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독교 사립학교인 새언약학교가 지난 4일 인터내셔널데이 행사를 열고 세계 각 나라의 언어와 음식, 춤 등의 문화를 선보였다. (맨 뒷줄 오른쪽) 제이슨 송 교장.

### “미주장신 인문학 포럼 ‘기독교 정의와 위안부 문제’”

3월 17일 첫번째 포럼...발제자 민중기 목사



발제자 민중기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이민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인문학 포럼을 개최한다.

2016년 총 4번의 포럼이 계획되어 있으며 복음을 인문학적 성찰로 풀어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첫 번째 포럼은 3월 17일 오후 7시 “기독교 사회정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주제로 열린다. 최근 한국사회는 물론 LA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위안부 사과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발제는 기독교윤리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민중기 목사(총현선교교회 담임)다.

두 번째 포럼은 4월 7일 이상명 총장을 강사로, “성경, 생태, 생명신학”이란 주제 아래 열린다. 9월 15일 열리는 세 번째 포럼에서는 최캐런 교수가 “두뇌 과학과 성경 묵상”이란 주제로, 10월 13일 마지막 포럼에서는 박동식 교수가 “기독교 진리와 사회 소통”이란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문의는 웹사이트(www.ptsa.edu)나 전화 213-703-9856으로 하면된다.

### 남가주 학생 찬양대회

남가주 지역 어린이들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남가주 학생 찬양대회가 오는 4월 30일 생수의강 선교교회(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남가주교회음악협회와 미주복음방송 주최로 열린다. 이 대회 참석자들은 성악 분야의 경우 한국어로 찬양해야 하며, 올

해 새롭게 피아노 부문이 추가됐다. Pre-K부터 12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고 3월 14일부터 4월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문의는 남가주교회음악협회 웹사이트(kcmasc.org)나, 임보희 어린이분과위원장(전화 909-610-5431)에게 하면 된다.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201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집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 3:13)

**일시** 2016년 3월 21일~3월 25(금)  
**시간** 오전 5:00~6:00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www.cmc-12.com



DMZ에서 ILF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WEA

### “한국 개최 2016 WEA 세계지도자대회 성료”

#### WEA ILF 메시지 통해...한반도의 평화와 연합 위해 기도할 것

WEA(세계복음연맹)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진 2016 세계지도자대회(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ILF)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해마다 모이는 모임에 40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했고, 어떻게 하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구조적이고 지역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이룰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ILF 참가자들은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남북한의 경계인 DMZ에 방문하여 기도했고, 분단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ILF 2016에는 WEA의 국제 연맹 기구, 행정 지도부, 지역별 복음연맹의 최고 지도자, 일부 국가별 복음 연맹

의 최고 지도자,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글로벌 파트너 조직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WEA 총무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은 “올해 ILF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한 논의가 매우 전략적이었다. WEA의 여러 그룹들이 함께 모여 개인적 또는 전문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모임의 중요성 뿐 아니라, 한국의 생명력 있는 기독 공동체와의 관계성 강화가 있었다. 전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에서 참석한 우리는 넘치는 환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ILF 2016의 주제는 “복음 안에서 의 동역 :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이었으며, 발립보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인 발립보서 1장 4-6절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

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각각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도 함께 토의했다.

3일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가했으며, 텐데로 감독은 WEA를 대표해서 기도했다. 마지막 날에는 수백 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환송예배와 오찬을 함께 했다.

ILF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한반도 국민을 향한 WEA 친선 메시지를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 기도할 것을 천명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수민 기자



OC교협이 성경 통독을 위한 기적의 3일 집회를 열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7일부터 9일까지 <성경 통독을 위한 기적의 3일> 집회를 은혜한인 교회에서 열었다.

이 집회는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가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성

경을 보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강사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의 대표 주해홍 목사였다.

주목사는 3일 동안 연대기 순으

### OC교협 주최 성경통독 위한 기적의 3일

로 성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성경의 맥을 잡도록 도와 주었고 여러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찾을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주었다.

OC교협은 “OC 지역 내 450여 한인 교회를 진정으로 섬길 방법을 고민하던 중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근본적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OC 내에 세계본부가 있는 ‘90일 통근통독’의 저자이고 ‘성경읽기 운동본부’의 대표로 있는 주해홍목사를 감사로 초청, 이 집회를 열게 되었다”며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 “사회변화 복음으로 이루자”

1983년 설립된 이래, 전 세계 교회의 전도와 사역을 위해 9천 3백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온 머스타드 시드 재단(MSF, Mustard Seed Foundation)이 한인들에게도 소개됐다. 최근 KCCD(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는 이 재단의 브라이언 바키(Brian Bakke) 회장을 초청해 보조금 신청에 관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인 은 물론 30여 명이 가까운 타민족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서점 운영 자금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사역은 결정적으로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이어야 한다.

지급하는 보조금은 크게 ‘지역사회 복음화’와 ‘제자화 사역’ 등 두 가지로 정리된다. 어떤 종류의 보조금 이든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교회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일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보조금액은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도 십일조나 기타 헌금으로 사역을 지원해야 한다. 교회 개척에 대한 자금도 지급하는데, 모 교회(mother church)가 일정 부분의 재정을 감당할 시 재단 측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 머스타드 시드 재단 교회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바키 회장은 재단의 역사와 보조금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 재단은 지난 30년간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교회들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과테말라에 스케이팅장을 세우는 것부터 콜롬비아에 음악학교를 건립하는 일, 구세군과 함께 LA에 녹음스튜디오를 만드는 일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다. 지역별로 미국에서는 어린이 캠프 참가자를 위한 장학금,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신용대출금, 대학 장학금에 사용될 보조금을 지급했고, 유럽에서는 난민이나 집시를 돕는 사역 비용, 아시아에서는 청소년 농구팀 결성을 위한 자금과 대학생을 위한

KCCD의 임혜빈 대표는 “매우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바키 회장을 초대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 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그동안 사역 기록이 없거나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 한인교회들의 신청을 권했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www.msfdn.org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머스타드 시드 재단의 보조금 지급 사역을 소개하는 워크숍이 LA 한인타운에 있는 아주대학교 LA 캠퍼스에서 이 학교 도시 리더십 석사(M.A. in Transformational Urban Leadership) 프로그램의 협력 아래 최근 열렸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하,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opm Duplex  
 Dual Scan ADF 80 o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bizhub Marketplace



제48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이경숙 권사)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 주제로 3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 “국가 번영 위한 교회의 신앙 본질과 정체성 회복 필요”

## 제48회 국가조찬기도회 ...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 주제로 개최

제48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시 33:10-12, 딤편 2:1-3)'이라는 주제로 3월 3일 오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됐다.

'성경적 섬김, 나부터 개혁, 새 마음 국민 통합, 경제 재도약, 한반도와 세계 평화'라는 부제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는 박근혜 대통령, 교계를 비롯해 정·재계 및 각계 지도자들과 해외 한인교회 인사들, 세계복음연맹(WEA) 세계지도자대회 참석차 방한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식전행사 후 오전 7시 30분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 사회로 국회조찬기도회장 홍문종 의원의 개회사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의 개회기도, 명지대 유병진 총장(시 33:10-12)과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딤편 2:1-3)의 성경봉독, 서울장로성가단과 의정부장로합창단의 특별찬양

후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개회사를 전한 홍문종 의원은 "나라를 위한 예배와 찬양이 지금까지 이어져 대통령님과 함께 드리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이렇게 48회를 맞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 조속히 통일을 허락하시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평화와 공영에 크게 기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오늘 우리는 여야를 초월하고 정파를 넘어 초당적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려 모였다"며 "한국 기독교는 원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살리는 일과 교회 살리는 일을 함께했던 종교"라고 말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131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전해진 이래, 한국교회는 낮은 곳에서 우리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해 왔다"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헌신했고,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한 미스바의 기도가 나라의 호국과 평안을 가져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땅에 '미스바의 기적'이 재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 이후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음 세대 청년들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기도회'가 개최됐다.

이대용 기자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가 3월 정기 월례예배를 드렸다.

#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 정기 월례예배”

사우스베이 한인목사회(회장 이황용 목사)가 9일 오전 가디나 선교회(담임 이호민 목사)에서 정기 월례예배를 드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성일 목사(빅토리아예수교회 담임)는 '목회사역에 인터넷 활용과 이단 대처 연구' 제목으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이단에 미혹된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그때 그 성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

씀과 기도로 그 영혼을 돌보지 못했음을 가슴을 치며 스스로 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단은 녹음기처럼 세뇌된 가르침으로 줄줄이 현혹시키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또 성도들이 질문할 때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답을 줘야 한다"면서 "목회자들이 이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진 인터넷 활용 강의에서는 "사도바울이 21세기에 선교를 했다면 반드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며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교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예로 "우리 교회는 총기, 범죄, 차량도난 등 사고를 조화할 수 있는 사이트, 병원, 부동산정보 등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교회 웹사이트에 링크시킨다"며 "불신자들에게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황용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율복 목사(한인소망교회 담임) 대표기도, 구진모 목사(시온연합감리교회 담임) 축도가 있었고, 이어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 및 미국의 영적 회복과 목회자를 위한 합심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이인규 기자

#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오네시모는, 매우 매력적인 그러나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신약성경의 인물이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단 두차례 언급되었다. 골로새서(골4:7)와 빌레몬서(1:8~18). 빌레몬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편지가 정경이된 25절짜리 단 1장의 성경이다. 바울은 로마의 자신의 심복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자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옛 종이었으며 그로부터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과거를 알게 되었다. 편지에서 바울은 옛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여 받아줄 것과 만약 빚진게 있으면 본인이 대신 갚아줄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아름다운 성도간의 이야기로 작은 에피소드가 되지만 거기서 그친다. 하지만 놀랍게도 훗날 오네시모는 당시 핵심교회인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순교한 것으로 전승은 기록하고 있다. 노예에서 주교로. 이 드라마틱한 삶의 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러하듯, 오네시모에게도 인생과 구원과 신에 대해 씨름하던 중년의 세월이 있었지 않을까? 오네시모의 독백을 통해 우리의 독백에 가만 귀기울여 보자. -편집자 주

## 1. 파로스 등대

파로스 등대 꼭대기에 햇불과 거울이 설치되나 보다. 앞으로 지중해로 오가는 대형상선들이 그 빛에 의지하여 나일강 하구에서 안전한 항해를 할 것이라는 관제소문이 돌고 있다.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제국전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을 자랑하는데 가이사르가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로마는 속주 신민들의 마음을 뛰어난 공공건축으로 얻어내고 있지 않은가.

제국의 반대편 이집트 파로스섬에 어른 100명을 쌓은 높이의 등대가 설치된 것이 어인 300년전이다. 사람들은 이 건축물을 가늠한 것은 인간이 아닌 오로지 신의 능력이라며 기이한 성취를 찬탄하고 있다. 불가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 헤아릴수 없는 일. 그 단어를 써가며.

(저자 주 -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는 BC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섬에 세워진 거대건축물이며 모든 등대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고대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하나 요즘 나에게 불가사의는 그 등대가 아니다. 정말로 믿

기 어려운 일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와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시리아속주 변방에서 들려오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다.

예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예수가 부활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워주던 날 그가 그냥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신의 아들이자 또한 신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어디 베드로뿐인가. 오합지졸 같던 예수의 많아봐야 100명도 되지 않던 제자들이 집단면역이라도 걸린듯 목숨을 걸고 여기 제국의 심장까지 오게 만드는 기이한 확신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

신이 파로스의 등대 같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고 죽음으로 인간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기이한 이야기. 신은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였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 불가사의 한 사랑이야기가 로마제국의 하층민 사이에 마른철에 불길같이 퍼져 나가고 있는가. <계속>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시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 빛을 땅 끝까지

이사야 49: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600년을 두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으로 흑암한 세상에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오시겠는데, 그가 오시어서 땅위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질 두 가지 비교적인 역사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 위에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계약의 대상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곧 남자들의 할례를 통하여 계속 확인, 보증시켜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효과가 무 할례가 되는 의미 없는 결과로 전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방의 그리스도까지 선포하시기 시작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 1.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비추는 복음

본문 1절에서 단수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나를”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지칭하는 말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항상 은혜계약의 성취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라는 사명의 입장에서 자신을 일인칭으로 나타내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은 구원사역을 위한 복음진리의 준비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이중논법으로 반복해서 “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가 생기기도 전에 예언하시며 이름까지 지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의 내용을 깨닫고 믿어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그 이름(예수)에 의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며, 요한일서 2장 12절에는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람을 보지 말고, 인간적인 관계를 개의치 않으며, 모든 이들에게 날카로운 칼 날로 쪼개어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광(磨光)한 살”이라는 것은 쇠붙이를 갈아서 빛을 낸 화살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통(箭筒: 화살을 담아두는 통)에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했는데, 종은 자신의 생각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무엇이든 쪼개 지나는 마광한 화살로 심령을 부수고 찢러 회개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카로운 칼날과 마광한 화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일깨우고자 했으나,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디고 완악한 자들로 인해, 성과를 보기 힘들어 보내심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 탄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할례 받은 자들이 버림받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사 49:4)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轉)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수고와 희생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비추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2.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

로마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어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은 버림을 받았지만,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그 중에 더러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6-8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계약의 맺으시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져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막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 받은 것으로 다된 것 인양 우쭐대고 잘못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은혜계약에 의해서 택하심으로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

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9-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말씀 중에서 이방인의 구원 얻을 숫자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으로 표현하여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로마서 11장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희 법상이 울무와 닮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은 흐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었으나 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세상적 속물근성으로 인해 그들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17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에 따르는 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으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열국의 아비)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의 첫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스라엘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피부색에 상관없이 이방 모든 민족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 3. 진리의 빛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성도

이사야 49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을 택하여 자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취 주어서 그 빛을 땅 끝까지 밝히게 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숫자가 그 종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과로 이루어졌을 때 “열 왕이 일어나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도록”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불들어 쓰신 여호와로 인하여 얻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은 불품없는 인생들로 이유 없이 짓밟히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속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고, 땅 끝까지 진리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당부하시며, 이 일을 위하여 힘써주시기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합당한 사역자로 쓰임 받으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땅위의 모든 인종들이 일어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방백들이 경배하도록 만들어주실 이 언약에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나님 앞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사역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새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Church Property Solution 교회부동산 전문회사

Division of Max Capital Group, Inc.

## 교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소와 건물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사역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Church Property Solution은 부동산 활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지역 교회들을 돕는 교회부동산 전문회사입니다.

**교회 부동산 매매**  
Church Property Sales

**교회 부동산 리스**  
Church Property Lease

**교회 미디어 디자인**  
Media Design & Consulting

부동산 매매와 리스 | 인더스트리/오피스 건물/비즈니스 팍을 교회로 변경 사용 | 교회 건물 렌트 | 건축/증축/보수 상담 | 교회 부동산 용자 각 시의 CUP 받는 것을 대행 | 예배실 디자인 | 교회 미디어 상담/디자인 | 이에 필요한 모든 벤더들과 협력

**Mark Kim, CEO/Broker**  
BRE # 01338646, NMLS # 3933349  
PH (909)643-3994  
Email: markk@churchpropertysolution.com

**Stephanie Jung, COO**  
BRE # 01849106  
PH (562)480-6912  
Email: sjung@maxcapitalgroup.org

**Max Capital Group, Inc**  
135 S State College Blvd Suite 200  
Brea, CA 92821  
PH (714)987-6120 | Fax (909)635-6116  
www.churchpropertysolution.com  
BRE # 01987951 NMLS # 1425276

#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다문화 선교(4)

## 동화주의인가 샐러드볼인가?

현재 미국은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혹자는 미국 사회를 동화주의 혹은 용광로(The melting pot)라고 표현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동화주의와 용광로 이론은 소수 문화보다 기존의 다수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민 온 다민족이 한데 얽혀 마치 용광로에서 쇠나 알루미늄이 녹듯 모두가 녹아서 하나의 단일문화와 단일국가를 형성하게 된 나라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회학자들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은 미국은 샐러드볼(A Salad Bowl)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을 용광로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게 샐러드의 야채들이 각각 독특한 맛을 내며 어우러지듯이 미국의 각 종족들도 자기 종족의 문화적 특성보다 타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은 현재 문화와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있어서도 하나의 확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샐러드볼과 같은 문화적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초기의 미국은 퓨리탄(The Puritans)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개신교가 활발하게 발전되었다. 퓨리탄은 생활이 엄격하고 교리적으로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John Calvin)의 교리를 중심으로 신의 절대적 권능과 근검, 절약, 극기의 신교 윤리를 삶의 규범으로 삼으며 생활했다. 그리고 후기에 들어서는 가톨릭과 유태교가 전래하여 변장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3대 종교로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유태교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다.

개신교와 가톨릭과 유태교는 미국사회에서 모두 번성하였고, 무려 33만 8천 개의 교회 또는 성당 건물을 세웠다. 이러한 추세로 미국의 약 60%는 기독교와 가톨릭 그리고 유태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수치는 1960년까지 변동이 없었다.

지금 미국 내에는 통계적으로 약 600개 종류가 넘는 종교 단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숫자는 작은 사교집단 같은 종교단체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약 1,200개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종교의 다양성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특별히 19세기 미국이 세계 제일의 GDP 국가로 성장할 정도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자 미국은 유럽으로부터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결과 가톨릭



송재호 목사  
하늘샘교회

릭교가 증가하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동유럽으로부터 온 루터 교도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의 기독교의 변화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산업화는 자동차와 라디오 가전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이러한 현대의 기술문명이 세속화를 수반하여 오히려 종교를 약화시켰다. 즉, 사람들은 성경책과 신앙을 찾기보다는 현대의 기술문명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기독교는 부활하게 된 듯 했다.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자 미국은 사상 유례없는 부국으로 성장하게 되고, 중산층이 확장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가정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에서 찾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은 주말마다 모든 가족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은 오래 가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196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에서는 반 문화시대가 형성되어 이러한 영향으로 종교는 다시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었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소수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부활하던 1980년대에는 그들이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도덕적으로는 Moral Majority라는 슬로건으로 다시 뭉치면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세기 이후로 들어서면서 미국에는 유럽에서 오는 이민자 숫자보다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히스패닉 그룹은 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종교는 대부분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다. 히스패닉의 이민증가로 미국에서 가톨릭교인의 숫자는 늘어날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2차 대전 이후부터 늘어난 아시아 이민자들로 인해서 미국에는 불교 및 동양종교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아랍국가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로 인해 이슬람교도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내 어느 종교의 인구가 많은가 하는 통계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일단 2011년 이후 각 종교별 신도수를 조사한 미국 Census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의 최대 종교는 기독교이다. 미국 내 기독교는 미국의 전 인구의 약 76.5%에 달한다고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 수라함은 개신교와 가톨릭 신도의 수를 합한 수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기독교인 수 중에서 가톨릭의 인구는 전 인구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침례교로 16.3%, 감리교가 6.8%, 루터교가 4.6%, 장로교가 2.7%, 오순절교가 2.1%, 성공회가 1.7%, 몰몬교가 1.3%, 크리스천사이언스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교파와 교단을 합하여 기독교라는 통계적 숫자로 밝혀진 것이 바로 76.5%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종교는 유대교로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슬람교가 0.5%, 불교가 0.5%인데 불교는 이슬람교보다 약간 적은 숫자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힌두교로 0.4%에 해당한다.

이렇듯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민역사가 역사적 사실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내에는 600개 이상의 민족, 언어 종족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문화 현상을 감안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기초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에서의 다문화 현상은 언어 뿐 아니라 음식, 음악, 예술, 의복, 건축,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기에, 지역사회의 욕구를 듣고 이를 돕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교회는 샐러드볼 이론에 의해 다문화 이주민의 종교를 다양한 문화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그 이유는 교회는 다문화 현상에 있어서 성경적 해답과 복음의 사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문화 사역이 나아가야 할 목적은 이들을 훈련시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주민들을 훈련시켜 세계선교를 위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사람이 악이나 죄의 근원이 아니다. 죄는 사람에게 더하여졌다. 악의 최초의 출처는 사탄이다. 사람은 죄와 악의 매개체일 뿐이다.

죄는 유혹을 통하여 사람에게 들어왔다.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인간은 사탄이 제시한 그 죄에 동의하고 동참한다.

인간의 잘못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사망의 길, 비참의 길을 택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태초의 에덴동산은 단순히 먹고, 자고, 즐기고, 휴식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곳은 인간의 성숙을 위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확증되어지고, 견고하여지며, 나아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장소이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정해진 인간의 훈련기간 동안 성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적 설정(setting)이요 환경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침투를 허용하였다. 최초의 안식일에 하나님과 인간의 즐거운 휴식이 있을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타락하였다.

자신이 타락했던 과정을 그대로 인간에게 제시하여 인류를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시도한다.

사탄의 공격은 첫째, 좋은 하나님을 독재자, 인간의 성숙을 막는 장애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파괴하고 있다. 둘째는 인간관을 바꾸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억압적인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선한 인간이 되어서는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유혹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사탄의 거짓말이 사실같이 착각하게 한다. 비틀어진 신관과 인간관으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결국 아담은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 에덴동산에서 타락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되는 사탄의 유혹을 광야에서 물리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되는 것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민종기 목사  
총현선교회

사탄의 타락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타락 이후 사탄은 지상으로 내려쫓겼다.

하나님은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였다. 에덴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었고, 이 평안의 땅은 유혹의 현장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창 3:5). 이는 사탄의 유혹이다. 사탄의 유혹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거역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rebellion)을 위하여, 사탄은 거짓으로 이브를 유혹한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동하는 지구촌의 종말론적 시대상황에 대한 선교전략의 재정립을 위해!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한 위대한 선교비전과 긴박성의 재확인을 위해!  
 700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선교적 대각성을 위해!  
 국내외 최고 강사진 200여명과 세계한인선교사 1200여명을 비롯한  
 목회자, 평신도, 청년,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 및 선교사자녀(MK) 등  
 도합 5000여명의 집결을 예상하는 이 시대 최대규모의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로렌 커닝햄 YWAM 총재, 데이빗 로스 안디옥커넥션 대표, 폴 애실맨 CRU 부총재, 론 스미스 YWAM SBS 성경학교, 타드 존슨 고든켄넬 교수, 존 왈러스 아주사대학교 총장, 서삼정 아틀란제일장로교회, 한기홍 은혜한인교회, 김남수 프라미스교회, 장영춘 쾨츠장로교회, 나광삼 쾨무리교회



고석희 KWMC 사무총장, 이승중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김혜택 뉴욕총신교회, 배현찬 주예수교회, 호성기 필라델피아교회, 정인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이동휘 바울선교회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강승삼 KWMA 전회장, 박기호 플러신학교 교수



김양재 우리들교회, 오정호 세로남교회, 장상길 송도주사랑교회, 마이클오 국제로잔운동 총재, 이동열 GKYM 사무총장, 송충석 KWMF대표회장, 안성원 KWMF사무총장, 한도수 KWMF공동회장, 김중국 KWMF공동회장, 박명하 KWMF공동회장, 강대홍 태국선교사



강성일 브라질선교사,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선교사, 김영관 베트남선교사, 김경일 KWMF사무총장, 김정환 미주선교사, 정석천 태국선교사, 최용순 가나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승호 일본선교사, 장영호 러시아선교사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전세계 한인선교사 1,200명**



오정호 세로남교회,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진재혁 지구촌교회, 김양재 우리들교회, 김동엽 목민교회, 김문훈 포도원교회



스콧스키스트 플러신학교대학원장, 고석희 KWMC 사무총장, 한정국 KWMA 사무총장, 최형근 서울신대 교수, 김병운 필리핀 선교사, 강운식 기쁨병원 원장

등록문의 [www.kwmf.info](http://www.kwmf.info) / [kwmf2016@gmail.com](mailto:kwmf2016@gmail.com)  
**KWMF** • 인도네시아 62-813-8100-9905, 070-8221-1361 • 미국 1-213-507-3875

KWMC2016 6월 6-10일	일반 (만26세 이상)	대학생/청년 한어권/영어권 (만18~25세)	청소년 (만13~17세)	초등학생 (만7~12세)	아동 (만3-6세)
1차 3/31 마감	□ \$300	□ \$200	□ \$150	□ \$100	□ \$50
2차 5/15 마감	□ \$325	□ \$225	□ \$175	□ \$125	□ \$75
3차 6/5 마감	□ \$350	□ \$250	□ \$200	□ \$150	□ \$100
KWMC 대회숙박	□ 기숙사 2인1실 \$15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2 베드룸) \$200 /1인당 (4박5일) □ 아파트 2인1실 (1 베드룸) \$215 /1인당 (4박5일)			동숙 무료 별도침대 □ \$50	

\*숙박을 안하실 경우 등록금만 내시면 됩니다. \* 하루만 참가하실 경우(DAY-PASS) \$100 입니다.  
 \*한 교회에서 단체등록시 10명 이상은 등록금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숙박비 예외)

**제3차 선교사자녀대회**  
 2016년 6월 3일(금)-6일(월) 17세 이상 선교사 자녀 400명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KWMC2016!**  
 KWMC2016은 모든 세대가 함께 가는 선교대회입니다. 아래 대회들은 모두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동일한 일시인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동일한 장소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개최됩니다.

**영어권대회 English Conference**

18세 이상 영어권 대학생/청년  
**GKYM FEST**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어린이선교대회 청소년선교대회**

3-12세 여병헌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13-17세 고현진 전도사 고유진 전도사

일시	대회	대상
6/3(금)-6/6(월)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전세계 한인선교사
	MK(선교사자녀)대회	17세 이상 선교사자녀
	MK청소년선교대회	13-16세 선교사자녀
6/6(월)-6/10(금)	MK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선교사자녀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18세 이상 한어권
	차세대영어권선교대회	18세 이상 영어권
	청소년선교대회	13-17세 청소년
	어린이선교대회	3-12세 어린이

등록/문의 **KWMC**  
 온라인등록 ▶ [www.kwmc.com](http://www.kwmc.com)  
 이메일등록 ▶ [kwmc@kwmc.com](mailto:kwmc@kwmc.com)  
 전화 ▶ 516-277-2081, 2082  
 팩스 ▶ 516-686-6128

▶ 등록비가 인상되기 전에 속히 등록하시고 항공편도 속히 예약하실수록 저렴할 것입니다.

**KWMC2016**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1330 Wolver Hollow Rd, Oyster Bay, NY 11771

2016년 6월 6일(월)-10일(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캘리포니아**  
 901 E Alost Ave, Azusa, CA 91702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치며 삼척시 대학로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동해시기독교연대.©NCCCK

### “한 명이라도 소외되면 '성서적 살롬' 아니다”

예장합동 사회봉사부 ... '제100회 화해를 위한 평화 만들기' 워크숍 개최

예장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사회봉사부가 7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제100회기 권역별 화해를 위한 평화 만들기 서울·경기 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개회예배에 이은 두 번의 강연과 주제 및 사례 발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장윤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서헌제(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특히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제목으로 강연한 장윤재 교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또는 성서가 말

하는 평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며 "구약성서는 평화를 '살롬'으로 표현한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인들의 인사말이다. '살롬'은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 한가운데서 간절하게 피어난 소망의 언어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살롬의 평화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는 정의다. 살롬은 정의 위에 세워진 평화"라며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돌보는 하나님은 정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둘째는 사회 전체의 화해다. 만

약 사회 구성원의 단 한 명이라도 어떤 고통과 소외, 불의와 억압 때문에 깨지거나 쪼개지면, 실사 나미지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해도 성서는 그것을 살롬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성서가 말하는 평화, 즉 정의에 기초하고 한 사람도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는 평화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일본핵 오염범위, 상상보다 크다”

방사성 물질 75% 행방불명... '탈핵주일' 시작

6일부터 한주간 2016년 '탈핵주일'이 진행됐다.

특히 2016년은 체르노빌 30주기와 후쿠시마 5주기를 맞이하는 해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CK)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험을 기억하며, 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명 세상을 지켜 나가자는 취지로, 매년 3월 11일 직전 주일을 '탈핵주일'(핵 없는 주일)로 제정했던 바 있다.

2016년 탈핵주일을 맞아, 일본 현지에서의 보고가 날아들었다. '동북 헬프' 단체 사무국장이며 신학박사인 가와카미 나오야 목사(일본 기독교단 샌다이 기타산반쵸 교회)는 한국 한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 형태

의 보고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이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지만, 현지인들은 무감각한 상태며, 오히려 교회만이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사옥, 광화문역 2번출구)에서는 핵없는 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와 NCCCK 생명윤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제4회 탈핵연합예배'를 준비했다.

이번 예배는 "핵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주제로 후쿠시마 5주기, 체르노빌 30주기를 기억하는 예배로 드린다. 또 각 지역 교회들에는 탈핵주일 공동 기도문과 설교문이 배포됐다.

박용국 기자

### “제3의 종교개혁 모델이 창조적 한국교회 모델 만들 것”

한목협 제32차 열린대화마당...종교개혁500주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김원배 목사 한목협 상임회장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2)란 주제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김경원 목사, 이하 한목협) 제32차 열린대화마당이 8일 성락성결교회(담임 지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4일 열린 열린대화마당에서는 루터회, 예장고신, 예장합동 등의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상황을 들었다. 이번엔 기성, 기장 등의 목회자들이 나서서 발표했다. 먼저 정병식 교수(서울신대)는 "종교개혁의 배경: 중세 후기 교회와 신학적 정황, 면죄부"란 주제로 강연했다.

정병식 교수는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다. 먼저 개혁의 불가피성을 교회의 리더십에서

찾았다. 그는 "교황은 본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출발했지만 중세가 깊어 갈수록 본질과 고유의 과제에서 벗어났고, 교황직은 권력과 이권의 각축장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김원배 목사(한목협 상임회장, 꿈동산교회)는 발표를 통해 제3의 종교개혁 운동을 주장했다.

먼저 그는 "체코출신 신학자였던 밀란 오포첸스키 박사는 그가 세계 개혁교회연맹 총무로 재직하던 시절에 첫 번째 종교개혁과 두 번째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제 3의 종교개혁의 모델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밀란 오포첸스키 박사는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전통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학자들이 동원하여 여러 번의 협의회를 거쳐 제3의 종교개혁의 모델을 창출하고자 했다. 그가 지향했던 목표는 제1차 교회개혁 운동들이 결여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차원과 제2의 종교개혁이 결여하고 있는 하나님나라 실현을 위

한 차원을 종합하여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이 통진된 종교개혁의 모델을 창출코자 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오포첸스키의 시도는 우리에게도 영감을 주는데, 우리에게도 두 요소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제3의 종교개혁의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창조적인 한국교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두 사람의 발표 외에도 이재천 목사(기장, 목회와신학연구소장)가 "기장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목협은 "금번 대화마당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종교개혁과 같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교회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전했다.

이수민 기자

### “국내 무속인 20만 시대”

교회언론회...망국적이고 국민 혼란케 하는 일 막아야

2일 (사)대한경신연합회 관계자가 불교계 모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2006년에 13만 2,990명이던 무속인 수가 올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무속인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데, 워낙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지역별로는 구체적인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현상은 취업난과 대학 내 각종 무속 강좌 등에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까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논평을 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대학들이 무속 강좌를 개설하여 대학생들을 오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 당국들은 무속 강좌를 즉각 폐지해야 한

다. 학문은 과학적이어서는 안 되고 무속이 과학적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제라도 우리 사회는 이런 망국적이고 국민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마음을 황폐케 하는 일들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며 "이제 내달이면 총선이 진행되는데, 예전처럼 일부 개념 없는 정치 지망생들이 거액을 들여 무속을 의지해서라도 정치적 야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지금은 고등종교 시대이며 정보화 시대이다. 사마니즘과 종교는 구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중하시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건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AB) 목회학사(M.Div), 신학박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ceui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선: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남가주 지역의 명문 기독교 사학 바이올라대학교.

#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CA 대학 압박”

## 캘그랜트 포기하든지... 성 소수자 수용하든지

캘리포니아 주 내 대학들이 성 소수자와 그들의 활동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 정부 학비 보조금인 캘그랜트(Cal Grant)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직원과 학생 등에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가할 수 없게 된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거부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기에, 만약 전통 결혼을 지지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그 대학은 캘그랜트를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교 역시 캘그랜트가 중단될 경우,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에반 로 의원(민주, 실리콘밸리)이 제안한 법안 AB1888은 “2017-2018학년도부터 캘그랜트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직원과 학생이 성별, 성적 지향성, 성적 표현 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라”고 규정한다. 동시에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도 원천봉쇄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1972년 개정교육법 제 9조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AB1888이 통과될 경우, 학생들에게 캘그랜트 지급 자격을 얻고자 하는

대학들은 면제를 신청할 수조차 없다. 즉, 캘그랜트를 포기하든지 종교자유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현재 연방정부에 개정교육법 제9조 면제를 허가받은 학교는 226개교에 달한다.

한인들에게 유명한 학교는 캔터키 주의 에즈베리신학교, 미주리 주의 하나님의성회신학교, 텍사스 주의 베일러대학교, 유타 주의 브리검영대학교, 미시건 주의 칼빈신학교, 미주리 주의 컨콜디아신학교, 버지니아 주의 리버티대학교, 캘리포니아 주의 바이올라대학교와 페퍼다인대학교가 있다. AB1888이 통과되면, 남가주 지역의 명문 기독교 사학인 바이올라와 페퍼다인에 진학하려고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캘그랜트를 지원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

로 의원은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캘리포니아는 차별을 금지하고 민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정책위원회로 넘겨지고 토론된 후 정식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로 의원은 주 공무원들이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에 출장을 갈 때 출장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법 AB1887도 동시에 발의했다. 김준형 기자

#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용어 대체 용납 못해”

## 세계적 성경 번역 단체 위클리프협회...국제위클리프 연맹 탈퇴

미션네트워크뉴스, 크리스찬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적 성경 번역 단체 중 하나인 위클리프협회(Wycliffe Associates)가 국제위클리프연맹(Wycliffe Global Alliance)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위클리프협회는 친숙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단어를 언급하면서 국제위클리프연맹에 가입된 다른 성경 번역 단체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위클리프협회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소재한 국제 성경 번역 단체로, 1967년에 설립됐으며 전문 사역자와 자원봉사자가 무려 6천279명이 넘는 다. 2015년에도 75개국의 언어로 사복음서를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위클리프협회 이사회 모임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장소피아 기자

이번 공식 발표는 국제위클리프에 가입한 단체는 아니지만 위클리프성서번역회(Wycliffe Bible Translators)와 협력 단체인, 하계언어학연구소(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가 아랍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마리아와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암시를 피하기 위해 ‘아버지’호칭 대신에 “주님(Lord)”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그리스도(Christ, Messiah)’라는 호칭으로 대체한 것으로 인해 근래에 비난을 받은 이후 나왔다.

한편 위클리프협회는 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번역 작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국제 교회 협력 단체들에게 ‘오픈라이선스(open-license)’ 성경 리소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소피아 기자

# “나는 N입니다”

## 비영리 사역단체 ‘순교자의소리’... 박해받는 기독교인 위해 캠페인 시작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이들을 돕고 있는 비영리 사역단체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가 1일부터 ‘나는 N입니다’(I Am N)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은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24시간 기도회와 함께 시작됐다. 각종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이를 전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전 세계 시민들에게 기독교 박해가 단순히 ‘저 멀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고, 실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대하면서 고통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

순교자의소리 제이슨 피터스(Jason Peters) 부회장은 이날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형제자매들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 이들 편에 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라고 했다.

이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해받는 이들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인터그리티 뮤직(Integrity Music), 데이비드 C. 쿡(David C. Cook) 등과 함께 앨범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이들은 선스 앤 도터스, 브릴리언스, 이스라엘 앤 뉴브리드, 링컨 브루스터, 뉴라이프 워십, 워십룸, 렌드 콜렉티브, 그렉 사이키스 등의 음악가들이 참여한 캠페인의 사운드트랙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500만 달러(약 60억 7,300만원)가 모금됐다. 이는 모두 ‘나는 N입니다’ 관련 상품들의 판매 수익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박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강혜진 기자

# 교회 및 선교교회

<p><b>LA 지역</b></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점중학교 / 토요새벽-17와버몬트코너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b>김기섭 담임목사</b> www.LAsarang.com</p> <p><b>LA사랑의교회</b>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p> <p><b>연제선 담임목사</b></p> <p><b>LA 온하늘교회</b></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b>장태원 담임목사</b></p> <p><b>LA세계선교회</b>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b>한천영 담임목사</b></p> <p><b>갈릴리선교회</b>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b>엘리아 김 담임목사</b></p> <p><b>나눔과 섬김의 교회</b>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b>진유철 담임목사</b></p> <p><b>나성순복음교회</b>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b>한기형 담임목사</b></p> <p><b>나성동산교회</b>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미아기도방 수요일 10:30</p> <p><b>서건우 담임목사</b></p> <p><b>나성서부교회</b>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b>박현성 담임목사</b></p> <p><b>나성열린문교회</b>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p> <p><b>김경철 담임목사</b></p> <p><b>나성제일교회</b>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찬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b>정우성 담임목사</b></p> <p><b>남가주광염교회</b>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p> <p><b>김경철 담임목사</b></p> <p><b>산타모니카교회</b>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com</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b>조인수 담임목사</b></p> <p><b>써니사이드교회</b> 하루를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할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된 모임 오전 11:00</p> <p><b>김영구 담임목사</b></p> <p><b>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b>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b>김요섭 담임목사</b></p> <p><b>열매교회</b>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화·목·토·일) T. (213)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b>정장수 담임목사</b></p> <p><b>올림픽장로교회</b>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 T.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지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b>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b></p> <p><b>요한 선교교회</b></p> <p>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 (토)</p> <p><b>류종길 담임목사</b></p> <p><b>임마누엘선교회</b>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b>신승훈 담임목사</b></p> <p><b>주님의영광교회</b>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b>이명수 담임목사</b></p> <p><b>청운교회</b> 선교에 흠뻑 소진 초창기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b>민중기 담임목사</b></p> <p><b>충현선교회</b>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b>곽부환 담임목사</b></p> <p><b>한마음제자교회</b>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b>강지현 담임목사</b></p> <p><b>한우리장로교회</b> 말씀과 애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b>기독교일보</b></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b>김범수 치과</b> General &amp; Cosmetic Dentistry</p> <p><b>Bryan Kim D.M.D.</b></p> <p><b>김범수 치과</b></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389-0937, (213)389-0938 F. (323)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b>대표 주해홍 목사</b></p> <p><b>오늘 성경 읽으셨나요?</b></p> <p><b>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b>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산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F.(310) 530-8400/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올해 獨유입 난민數 10만 넘어”

메르켈 총리...포용 정책 유지할 것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개월 동안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숫자는 모두 10만 3,950명으로 집계됐다. 독일 빌트지는 2일(이하 현지시각) 경질 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난민들이 유럽 국가들 중 가장 선호하는 독일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유입 난민 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지난해에는 주무부처인 내무부가 한 해 동안 예상되는 유입 난민 숫자를 공표했으나, 올해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난민 위기 속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발칸 루트 차단 등의 여파로 난민 대응 부담이 가중된 그리스에 긴급 자금 지원을 나선 데 이어, 7일 터키와 정상회담을 열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작년 한 해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는 110만 명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28일 “큰 틀의 난민 포용 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공영TV 토크쇼에서 난민 포용 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후 “플랜B(대안)는 없다”고 강조해, 기존

의 정책을 유지할 방침임을 전했다. 메르켈 총리와 대연정은 이미 난민에 대한 문호 개방은 유지하되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안전국가 추가 △난민 가족 상봉 제한 △범죄 난민 추방 요건 완화 △국경 난민센터 설치 등을 통한 신속한 부적격 난민 송환 등 감축 및 통제 정책을 보강한 바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당수로 있는 기독교민주당의 자매 보수 정당으로, 대연정의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기민-기사당연합의 기사당은 이 같은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다.

기사당 제호퍼 당수는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차원의 해법이 가까운 시일 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우리가 독일 전역에서 별도의 대응 조치에 나서는데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민-기사당연합 풀커 카우더 원내대표는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검증을 시기는 아니”라면서 메르켈 총리에 지지를 보였다.

강혜진 기자

“영 엘리자베스 여왕,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http://royalcentral.co.uk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에 근거해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6일(이하 현지시각) 여왕의 가장 오랜 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성

공회의 수장이기도 한 그녀가 비밀리에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시민결합(결혼과 유사한 가족제도로, 배우자로서의 법적 권리가 일부 혹은 온전히 보장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은 “그러나 여왕은 동성결혼 이슈와 관련해 ‘조언이나 경고’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결혼이 한 남성과 한 여성 간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인은 여왕의 친구나 가족들, 과거

와 현재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한 뒤 “다이애나 비가 사망했을 때 버킹엄 궁전에 조기를 달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왕도 지금은 나의 의견에 공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2014년 3월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한 달 후 스코틀랜드 이를 따랐으며 현재 북아일랜드만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BBC는 “시민결합 상태에 있는 이들은 이를 결혼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올해 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영국성공회는 법적으로 동성결혼 예식을 수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다른 종교기관들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영국 왕실에서는 관련 기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최근 들어 여왕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점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90세 생일을 앞둔 여왕은 The Servant Queen and the King She Serves라는 제목의 새 책을 오는 4월 내용을 계획이다. 여왕은 새 책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텔레그램 통한 이란 내 복음 확장”

이란인 6만 명 이상...텔레그램 통해 성경 다운 받아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이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위성방송 ‘SAT-7’이 시작된 6개월 동안 수만 명의 이란인들이 성경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SAT-7에서 보안 채팅 방 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 9월부터 6만 명 이상의 이란인들이 성경 전체나 부분을 다운로드해오고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 앱은 사용자들이 익명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SAT-7은 기독교 프로그램과 보안 성경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화, 문자 메시지를 밀착 감시하고, 페이스 북을 포함한 소셜 미디어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이란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서비스이다.

SAT-7은 “하루에 이란 사용자들에게 2000개 이상의 감사 리뷰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신앙을 서로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공간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한다. 대다수가 기도를 요청해 오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을 간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SAT-7 PARS의 벤자민 파르사(Benjamin Parsa)는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해 줄 만큼 직원들이 충분치 않을 만큼 이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처음 앱이 실시한 이후 첫 주 동안 1,00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다운 받았다. 더 이상 하나의 팔로우 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것은 운동이다”라고 말했다.

이 앱의 사용자 중 한명은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사역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로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교회다”라고 말했다.

SAT-7 이란 시청자가 170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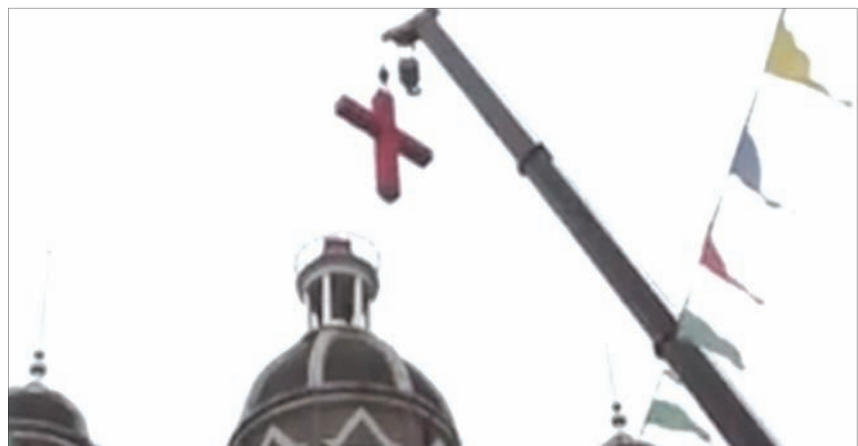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에 의하면, “이란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한 곳이며,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9위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의하면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을 때 남성은 사형을, 여성은 무기징역을 언도 받는다고 한다. 작년에만 1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체포, 구금되었으며 대다수의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란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 온 오랜 역사가 있으며 이란 전 지역에 폭력 사태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불법 종교’라고 지정한 기독교인이나 바하이 무슬림(Bahai Muslims) 같은 소수 집단을 합법적으로 박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스피아 기자





저장성의 한 교회에서 십자가가 강제 철거되고 있는 모습. © 인터넷서널크리스천컨선(CC)

# “중국, 교회 십자가 강제 철거해”

## 중저장성에서만... 1,800여 교회 피해 입어

한때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소문났던 중국의 저장성 윈저우(溫州) 시를 비롯, 이 지역 교회들이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로 심각한 종교탄압을 받았다고 6일 홍콩 동망(東網)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2014년을 시작으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저장성 내 교회 1,800여 곳에서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3월에 들어서만도 윈저우 시 영자(永嘉) 현과 창남(蒼南) 현에서 최소 5곳의 교회가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를 당했다.

핑양(平陽) 현에서는 현재 100여 곳의 십자가가 철거됐는데, 동망은 “현(縣) 국

토국이 앞으로 1주일 내로 관내 모든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라는 통지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식의 강제철거를 통해 현재 현지 교회 십자가가 존재하는 곳은 거의 드문 현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망은 벽지 교회 피해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십자가 강제철거 조치 피해를 입은 교회는 1,800여 곳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한 성도의 말을 인용해 “고속도로 인근 교회 십자가는 철거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 “이란 가정교회 급성장 추세”

## 기독교인 數 45만 명 추정... 현지인 지도자들 절실히 필요

이란 내부의 가정교회 운동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영국 소재 한 신학센터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며 이 운동에 큰 보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는 기독교가 자국의 이슬람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1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투옥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도 가정교회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현재 가정교회 운동은 이란의 종교 경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美오피도어선교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이란에는 약 4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수를 최대 100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별도로 각각의 가정교회를 이끌고 더 나아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이란인들의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울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파스의 한 소식통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소 200명의 이란 기독교인들이 런던에 소재한 파스신학센터(Pars Theological Centre)에서 훈련받고 있다. 이들은 가정교회 운동을 도와서 모든 이란인들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여러분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자금을 대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면, 기초적인 가치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이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이란인 운동이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리스도께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또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란 가정교회는 4~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임 때마다 장소를 바꾸어야 한다. 찬양을 부르고 싶은 경우에는 매우 조용하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고 했다.

파스신학센터는 메흐르다드 파테히 목사가 작년 2010년 설립한 것으로, 일부 이란 가정교회들과의 네트워크가 매우 잘 돼 있다. 파스의 학생들 중 약 70%가 이란에서 살면서 훈련을 받고 있다. 파스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온 것이다. 파스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을 위해 국제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사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파스의 목표는 하루에 1,000명의 이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이란교회의 빠른 성장은 긍정적이지만, 가정교회 운동의 깊이가 부족해서 매우 염려되기도 하다. 이 같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잘 준비된 지도자들이 심히 부족하다. 교회는 지도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정교회의 건강과 생명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파스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지도자들은 200명이 넘는다. 센터는 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센터는 다른 17개국에서도 이란 기독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강해진 기자

# “아프리카 복음화 막는 테러리즘”

## 미전도종족 사역단체 리치비온드...리 소니우스 현지 선교사 밝혀

최근 몇 년 동안 테러리즘이 아프리카 복음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현재의 한 선교사가 전했다.

아프리카 최전방에서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리 소니우스(Lee Sonius) 선교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소재한 미전도종족 사역단체 리치비온드(sub-Saharan Africa at Reach Beyond)의 담당자인 그는 “기술과 소통의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30년 전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과 우편을 주고받았으며, 이는 최소 3주가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분당 5달러에 통화 가능하다. 스카이프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료 통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다”고 했다.

소니우스 선교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었던 가장 큰 도전은 내전, 불안, 폭동, 특별히 라이베리아에서 많은

어려움을 일으킨 정치적 혼란 등이었다고 한다. 그는 “에볼라는 1년 내내 큰 장애물이었다. 큰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기 혹은 수도 부족 등 사회 기반시설 문제도 이슈였다”고 했다. 그 중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로는 테러리즘을 꼽았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케냐의 알샤바브 등 테러단체들이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안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니우스 선교사는 “아프리카에는 북부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노마드 부족을 포함해 수십여 개 미전도종족들이 있다면서 “전 세계 미전도종족의 날을 통해, 서양 교회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길 바란다. 이 행사가 중요한 기도운동이 된다면, 홍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O.C. / 얼바인 지역	
<b>김철민 장로</b>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b>CMF선교회</b> 가정들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b>김일영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T한국교회 9:30AM-10PM 대학원부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b>앤드류 김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들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야예배 7:00pm <b>UBM교회</b>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b>김영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양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어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b>오병익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생가축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b>남가주 벤엘 교회</b>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b>민경엽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교회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b>나침반 교회</b> 모이는 교회, 흠뻑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562)691-0691 / F.(562)691-0698 / nachimban.org
<b>박재만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5:30 (월-금) <b>남가주순복음교회</b>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c.com	<b>허규암 담임목사</b>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분당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b>놀워한인교회</b>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 F.(714)308-7038 / usa8291@gmail.com
<b>안창훈 담임목사</b>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양예배 7:30pm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b>늘푸른선교회</b>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b>김일권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다감사교회</b>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988-3321, www.dagamsachurch.org
<b>고현종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유 초등부 오후 12:30 4부 오후 2:00(점문이예배) <b>디사이플교회</b>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b>이서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사바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통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b>김한우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 새벽 헬스바기도회 새벽 6:00 <b>베델한인교회</b>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b>이동준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9:00 P-blender(Korean)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9)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침묵교회, 예프사콜 College 오후 1:00 <b>얼바인 아름다운 교회</b>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b>권혁민 담임목사</b>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b>얼바인 온누리교회</b>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b>홍성준 담임목사</b>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 <b>얼바인 한민음교회</b>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b>박경호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일성령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애) <b>얼바인 침례 교회</b>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b>우대권 담임목사</b> 주일 인터넷 생방송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b>영광빛복음교회</b>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b>김민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토요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b>예진교회</b>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 (Worship Center) T. (714) 87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vd.,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b>영민 담임목사</b>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b>오렌지카운터재일장로교회</b>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 F. 714-373-3097
<b>남성수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b>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b>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b>한기홍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b>은혜한인교회</b> 행복찬 교회, 사랑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b>주혁목 담임목사</b>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b>주님의빛교회</b>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b>최혁 담임목사</b>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 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b>주안예교회</b>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b>임경남 담임목사</b>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b>토기장이교회</b>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b>조원재 담임목사</b>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b>하나님의은혜교회</b>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

#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 AZUSA NOW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2016.4.9 SAT 7-9AM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역사적 Azusa Now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초청합니다

▶ 일시: 2016년 4월 9일 토요일

“한인들의 연합된 기도가 미국의 새벽을 깨우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7:00 am – 9:00 am (한인 인도 기도시간)

4:00 am – 10:00 pm (도시 총력 복음전도 초청 집회)

▶ 장소: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USC 경기장)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

▶ 주최: The Call과 미국 주류 선교단체 연합 (대표 루 잉글 목사)

▶ 한인 주관: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박희민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와 공동대표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각 교단,  
각 지역교협 및 목사회, 기독단체들, 한인교회들

▶ 주관언론사 :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www.chtv1888.org)

“한인교회 총동원 부활절 도시 전도 실천의 날로  
3월 27일 부활절 오후 2시부터 1,300개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총력전도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위해 무료 부활주일 전도세트(Easter Bag)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교회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384-5232/213-598-5323, laholycity@yahoo.com

REGISTER AT **AZUSANOW2016.COM**



지난해 호치민 지구총교회 창립 1주년 예배 모습. ©공인 목사 제공

●중보기도

# 북한 위한 기도는 성도의 사명

## 2016년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 전망(1)

연초부터 남북관계가 다사다난하다. 제4차 핵실험이 감행되면서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국제사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8.25 합의 등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기독교 배경의 많은 대북 지원/사역 단체들도,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임현수 목사의 역류 및 무기교화형 선교에 이어서 CNN을 통해 북한에 역류되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남한 국적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의 국적의 사역자들의 활동도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한 해 남북관계와 북한 체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북한에 마음이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일 것이다.

이번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힘을 얻었다며 '자강'의 상징으로 핵실험을 추켜세우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선 국방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논리 속에, 핵실험을 통해 정권을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 및 경축하고 인민 경제도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한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다.

국제사회도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그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 ◆2016년의 시착과 정세

2016년 북한의 신년사 발표에서, 김정은은 당 창건 70주년 관련 주요 성과를 과시하고 2016년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신년사에서는 정치나 사상보다는 경제 강국 건설 등의 과업이 더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김정은은 수소탄 발원 등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는 핵 관련 언급을 자제하였고,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가 2016년에는 좀 더 평화적이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신년사를 발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 ◆북한 체제 전망

공포 정치로 점철되는 북한 김정은의 정권 안정을 위한 움직임은 올해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핵실험 감행은 김정은의 의중이 핵 보유를 통한 정권 유지에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핵-경제 병진 정책에서 경제보다는 핵개발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또 경제적으로 득이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핵실험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은 정권의 주요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계속> [자료출처: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북한 개발 소식(2월호)]

# 여기는 베트남...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흠도 티도 없으려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공인 목사  
베트남 호치민 지구총교회

간증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그것을 못 견디고 설교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청빙한 교회나 우여곡절 끝에 해외로 사역과 삶의 터전을 옮긴 목회자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필자도 설교권을 신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민교회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과 고난 중에 깨달은 목사들을 나누고 싶은 욕망과 유혹이 있어도 꼭 참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베트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하고 나만 아는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도, 허 깨물면서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도 많고, 각자 출석하는 교회에도 많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들이 결국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기 때문이다. 속담처럼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경우는 대부분 말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원하셨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둘 때 침묵하도록 하신 것이나, 사가라의 아내가 세레 요한을 임신하였을 때 사가라를 병어리로 만드신 것을 기억해 보라.

이것저것 떠벌리면서 여러교성을 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아내의 임신은 말로 의심했다면 사가라는 아들을 얻기는커녕 가정이 깨어졌을 것이다.

말 한 마디에 은혜를 경험하고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세 치 혀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생계가 어려워져서라기보다, 자신을 닮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허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들도 한번 자신을 살펴 보자. 친구의 허물과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 덮어 주거나 지켜 주는 것보다, 말하고 싶어서 유

혹에 시달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때로는 그들의 허물을 빌미 삼아 나의 유익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동료의 실수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아는 성도의 상처를 기도 제목 나눈다는 핑계로 소문 낸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공동체를 위한다면, 침묵하고 잠잠할 줄도 알아야 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흠이 있어도 훈수나 잔소리를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만 많아진다. 이런 경우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배는 바다로 가야 하고,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한다. 주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닌가.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하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한다. 어부가 말에만 신경 쓰면 결국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산에 있는 어부는 결국 빌어먹거나 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인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말만 하다가 죄악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마실 다니려고 세상을 누비고 다니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잠잠히 주님 앞에 서자.

세상은 복음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을 몰라서 부흥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찬양한 대로 행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다.

그렇다. 말한 대로 살지 않아서다. 이제는 말한 대로 살고,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던가. 죽은 자가 될 것인지 산 자가 될 것인지는 당신의 행함에 달렸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살아 보자. 그것이 당신을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자료제공: 공인 목사(베트남 호치민 지구총교회, (리액션) 저자)]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 봄학기 학생모집

**봄학기**  
2016년 3월 21일(월)~5월 28일(토) 수업  
(봄학기 등록마감 3월 21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건강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p><b>신학 대학교</b> 신학과(BA) - 4년 / 126학점</p> <p><b>신학 대학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li> <li>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li> <li>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li> <li>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li> <li>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li> </ol>
	<p><b>일반 대학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li> <li>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li> <li>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li> <li>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li> <li>5) ESL 과정 - 1년</li> <li>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li> </ol>
	<p><b>홈쿨링</b></p> <p>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p> <p><small>*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small></p>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연속물인쇄 전문  
주님미디어닷컴은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상의 가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서디얼범음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할인 품목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디

각종 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상담원과 상담하여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랑**  
한 의사 **Zo'e 조애**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여드름, 축농증,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오십견,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기타 등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Tel(213)718-8275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중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용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후,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6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한수희 칼럼(1) 내 안의 보물찾기

# 그리스도인의 자아존중감

패션의 완성은 옷이 아니고 몸매라고 한다. 품이 넓은 옷으로 복부비만을 감출 수도 있고, 긴 소매로 팔뚝 살을 살짝 덮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감춰두었던 살들은 비집고 나오기 마련이다. 결국 필요없는 지방은 태우고 필요한 근육은 채워 멋진 몸매를 만들 때 내가 원했던 패션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아존중감 즉, 자존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회피로 우리의 모습을 감추지만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없는 한, 갈등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부적절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멋진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도 아니고, 긍정적 자기 암시로 정신 건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낮은 자존감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기가 어려우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역시 어렵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

지고 살아야 하는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긍정적인 가치 즉,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다.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평가한다. 첫째는 자기가치감(Self-worth)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다.

먼저 자기가치감에 대해 살펴 보겠다. 일반적으로 자기가치감은 자신의 역할이나 조건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을 기본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 역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존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는 확신이 기반되는 자존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가치감이란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며,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인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말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감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선택하거나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떤 과제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그 과제를 회피하고, 어떤 과제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내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라 여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삶에서 마주하는 도전에 맞서 기본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한 높은 자존감을 갖기는 어렵다.

간략하게 설명한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에 대해 갖는 편견과 오해들을 살펴보고한다.

가장 흔한 오해는 자존감을 자신에 대해 갖는 무조건적인 자기

긍정의 최면같은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다. 삶의 경험들을 통해 갖게 된 열등감이나 죄책감, 수치심으로 인해 자신을 향해 갖게 된 왜곡된 시선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에 대해 갖는 또 다른 편견 중 하나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될 때도 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다르다. 자기 사랑은 자신과 타인의 필요들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돌보고 보호하는 능력을 통해 상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기사랑이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내어줄 것이 있을 때다. 그러나 자신을 약자로 보는 사람이거나 자아도취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 자신의 것을 하나도 내어놓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자존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부인'(Self-denial)과 상충되는 개념이라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자기부인'을 '자기비

하'(Self-degradation)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자기부인'은 인간의 죄된 욕구들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기꺼이 벗어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다. '자기부인'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무시하고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기비하'가 아니다.

결국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근거된 자기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자기숭배의 자리에 앉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렌즈를 통해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마음의 렌즈가 깨어져 있거나 굴절되어 있으면 나 자신을 보는 시선부터 타인과 환경,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깨어지고 굴절된 모습으로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발견하고, 확장되고 성장한 자아를 통해 타인을 만나며, 궁극적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발돋움의 단계로 나아가길 수 있기를 바란다.

●김병태 칼럼

# 염려하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비록 '악한 사람'이어도 자식에 게만은 좋은 부모로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라고 하셨다(마 7:11).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악할 수 있음'을 아신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아닌 나쁜 것을 줄 수도 있다.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당부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골 3:21)."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인자라,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못한 모습으로 '나쁜 흔적'을 남겨 주기도 한다. 부모가 남긴 나쁜 흔적 때문에 자녀들은 불행으로 치닫기도 한다.

언젠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한 명이 자살했다. 학급 반장도 했던 아주 밝고 리더십 있는 아이였다. 앞날이 구만 리 같이 창창한 젊은이가 도대체 왜? 그에게는 말 못할 기막힌 사연이 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성범죄자이다. 그의 아버지는 지방 철도 역에서 근무하는 40대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러 온 여중생을 성추행했다. 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버지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아들은 절망했다. 아버지처럼 철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큰꿈은 꿈을 접었다. 초등학교이던 막내도 '나는 불행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기 시작했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다.



김병태 목사  
성전교회

새롭게 출발하려고 이사도 해보았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이웃들에게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이다.

그도 한때는 마음을 잡아 보려고 노력했다. 의사가 돼서 가족들을 호강시키겠다고 다짐도 하고, 학생회장 선거에도 나갈 만큼 학교생활에 전념해 보려고도 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에

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눈만 뜨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난다. 나도 모르게 허튼 생각을 하게 되고, 약이 생각나지만 섣불리 행하지는 못하겠어서 그냥 잠들고 만다. 어젠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갔던 것 같다. 너무 괴롭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들의 인생에 초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 때문에 자식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해 주려고 하는 부모들도 자식들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부모가 있다.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으로 치닫게 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자. '나는 선한 부모인가 악한 부모인가?'

부모에게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는가? 그러나 기억하자. 나에게선 선하신 하늘 아버지

께서 계심을!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육신적인 필요일 수 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은 성령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13)."

혹시 이런저런 염려로 고민하는가? 하늘 아버지께서는 귀한 자녀인 우리를 돌보신다(마 6:26).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쓸데 없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기도한다. 마음을 '채물'에 두면 염려에 빠진다(마 6:24).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 두면 염려를 넘어서 수 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벧 4:6). 하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이제 삶의 패턴을 전환하자. 염려하는 삶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삶으로!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 복사기 무료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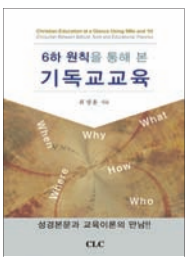


### 신간 추천

#### 기독교 교육

최성훈 | CLC | 4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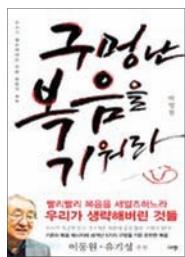
복음의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론 또한 중시하는 열린 복음주의의 시각으로 성경본문을 통한 기독교교육 제 분야의 이론을 정리하고 성경적 적용을 실제화하였다. 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 개론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교사와 직분자들의 교육목회 참고서로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역할이다.



#### 구명난 복음을 기워라

박영철 | 규장 | 2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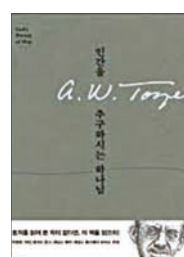
복음의 능력은 고작 천국행 티켓 정도가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 복음에 구명이 생겼다는 것이다. 복음 메시지에 구명이 났다면 그 메시지는 복음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복음의 핵심 정리가 필요한 초신자,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알고 있는 기존 신자, 온전한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 전도자 등에게 필요한 책.



####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에이든 토저 | 복있는 사람 | 158쪽

지금 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더 많은 교육도, 더 나은 조직도, 더 훌륭한 장비도, 더 발전된 방법도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치료하려면 위로부터 능력이 찾아와야 한다. 오직 성령님만이 기독교의 마비된 비실재성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



#### 개혁주의 전가교리

신호섭 | 지평서원 | 256쪽

저자는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핵심 교리인 칭의 교리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과 삶의 순종 가운데 나타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완전한 순종이 택하신 자들에게 전가되는 은혜를 전한다. 기독교 구원의 근간이 되는 칭의 교리, 그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책.



##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 “쉽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의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난무해왔다. 하나의 계시록을 놓고도 현대 주석가들은 과거주의와 이상주의, 역사주의와 미래주의 등 4개의 학파로 나뉘고, 여기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에 따라 후천년설·무천년설·전천년설 등으로 구분됐다. 이처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은 해석의 난해함과 상징 때문이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 날까지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다. 이를 간단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도들에게는 쉽게

이해함으로써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주해’(저자 김성수 목사)가 출간됐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소위 7년으로 한정된 대한난은 성경에 없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7년으로 한정된 대한난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 당하는 고난만이 있을 뿐이다...”(본문 중에서)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주해’는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식 주해로서 이해와



요한계시록의 주해 김성수 CLC | 616쪽

접근이 용이하며, 이단적 요소를 배격하는 해석에 초점을 두었다. 저자인 김성수 목사는 백석신학교(B.A.)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

원(M.Div.)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방주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저자는 여러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해석이 난해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온 결과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최갑종 박사(백석대학교 총장)는 “본서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원칙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이 1세기 말엽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로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목시문학이라는 장르로 기록된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고, 그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계시를 담고 있는 예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회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들에 충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책을 집필한 이유다”라고 전했다. 강은미 기자

희소식

#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 “교회 떠난 선행은 가식과 위선 보일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주제다. 그 주제는 신자 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사회 속에서도 펼쳐져야 하며, 우주적으로까지 확장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지역교회를 통해서도 성취되어야 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이 오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색다른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우선 저자는 ‘스키니진 스타일’과 ‘정장 바지 스타일’을 구별하면서, 전자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 영역에서 이기기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반대로 후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사회 속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으로 축소시킨다. 그리고 후자가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여 행동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문화 변혁과 형성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폭넓게 다루면서, “스키니진과 문화 변혁과 관련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말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사역과 업무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풀어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만 펼쳐지는 것”이라는 말로, 기존 개념들을 축소시키고 재로화시킨다.

이 책의 장점을 세 가지 정도 들면, 우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예수님 시대의 배경 속에서 파헤친다는 현장감이 있다. 단순히 오늘날 흔히 듣는 ‘죽어서 가는 나라’ 개념과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로마 황제 치하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그것이 받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포였는지를 설명한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 나라가 무엇이었고 이를 완성할 메시아는 누구였는지를 자세히 풀어간다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정치적·군사적·사회적 메시아와 그 나라의 성격이 잘 설명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왕되시고 주인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집중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그분을 알아야 그 나라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 시대와 성경 속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 준다. 특히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를 해소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새 계명과 희망을 주면서 성육신적 사역으로 주님을 통한 회복에 접근해간다고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책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전조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장점일 뿐이지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자부심과 책임감을 주는 건 분명하다. 더구나 요즘같이 개인화되고 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스캇 맥나이트 새물결플러스 | 496쪽

된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 회복과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회복을 강조하는 것은 더없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이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책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해석한다. 보통 이 말씀은 가난하고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구원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등 ‘지극히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저자는 그것보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교회를 벗어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가식과 위선을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교회 안에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사람은 보이고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기에 교회를 밀어내고 사회적 구제와 문화적 사역을 우선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교회에 의해 지휘받지 않고 구성원들과도 크게 갈등하거나 다룰 일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에, 누구나 교회 밖에서 사회 복음과 구원을 위해 힘쓰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교회에서 드러난다는 말이다. 실제 공동체 밖에 있고 나와 멀리 있는 자들은 부딪힐 일도 없기에, 얼마든지 선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같은 생각으로 행하는 게 쉽지 않다. 조금만 어긋나면 서로 물고 뜯고 멸망하는 일들이 있다. 이러면서 사회를 향해 스킨진을 입고 뛰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저자의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우주적으로 확장된다”는 말에 동의하고 공감한다. 더구나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교회가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하기에, 이 공동체에서 구속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사회를 향해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구석구석까지 뻗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여전히 진행되고 성취돼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저자의 이 말 모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우선 교회를 통한 확장이 유일하다는 식으로 강조

되면, 인간의 교만과 자량이 분명 정치화·사회화·구조화되어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십자가의 정신과 의와 사랑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역사에서도 보았듯 강자의 법칙이 교회에도 적용되어, 기득권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따라서 약자들은 소외되며 고통받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또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고 변화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만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저자는 이런 주장을 놓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화된 교회를 지나치게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 두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를 마음으로 받고 모신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나친 강조가 신학과 삶의 중심을 왜곡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되었다.

끝으로 필자가 보기에 저자는 보편교회와 지역교회를 동일선상에 놓고, 잘 구별하지 않아서 아쉬웠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까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보편교회와 더 가까운데, 저자는 불안정하고 언제나 전두하는 곳인 지역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한다.

물론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및 통치와 진리의 감화를 받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정의는 불안해 보였다. 그렇지만 후자가 더욱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책을 통해 다시금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폭넓게 볼 수 있었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코이카 최초 정부파견의사의 23년 여정”

유덕중 의사가 받아온 삶의 처방전

한국 정부는 1968년부터 40년이 넘도록 우수한 한국 의사들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질병 예방, 치료, 보건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주의적 사업을 펼쳐왔다.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해외 원조를 하는 나라로 비약한 대한민국에 대한국민의 자긍심과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활동을 담당하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묵묵히 파견 업무를 수행하는 봉사자들이 있다.

코이카는 1991년 4월에 설립되어 올해 4월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그리고 때마다 코이카에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파견한 1기 정부파견의사(이하 정파의) 유덕중 의사가 우간다에서 23년간 의료 봉사를 하면서 남긴 기록물이 책으로 나왔다.

이 책은 그 열악한 곳에서 고군분투한 그의 일생이 담긴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사반세기를 맞이하는 코이카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

최근 해외 봉사를 향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덩달아 코이카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



우간다에서 23년 유덕중 홍성사 | 264쪽

다. 1991년 코이카 봉사단 37명이 7개국에 파견된 것을 시초로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이 개발도상국 100여 나라에 파견되었다. 현재도 코이카는 매년 전 세계 50여 개국에 4,500명 이상의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봉사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보다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워낙 많은 변수와 위험 요

소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하나의 해결책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선배의 발자취를 확인하며 앞으로 밟아질 일을 가능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봉사하는 삶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믿을 만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관노와 기도운동총연합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 젊게 하는 세계 에미나99 꼭 사용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세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습보습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이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여행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앴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 항산화 세제 “에미나 99”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친환경 무공해 세제로 건강을 지킵니다.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2. 지구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마선 20% 감소)
3. 세제 비용을 1/3정도 줄여 경제적입니다.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저출함)
4. 물을 절약합니다. (세탁 시 한번만 행구면 건강에 좋고, 사용한 물은 식물에 거름이 되고, 하수구 정화됨)

자매품: 물돌, 밥돌, 튀김돌, 생생팩, 신비의물돌, 세수비누, 삼푸, 로션, 크림은 모두 항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 (로테오 켈러리아)

인터넷 “약손 나손” 검색 **Tel:323)316-6815**

## Foundation Seeks to Offer Funding to Help Launch Churches' Evangelistic and Discipleship Projects

BY RACHAEL LEE

An opportunity for smaller churches to receive funding for new projects has been highlighted at a recent workshop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The workshop, which took place at the Los Angeles Regional Office of Azusa Pacific University (APU), was attended by some 30 local church leaders of various ethnic backgrounds, including Korean American, Latino 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and featured Brian Bakke, the president of The Mustard Seed Foundation. The organization, which was founded in 1983, provides grants to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for start-up projects.

The Mustard Seed Foundation has funded over \$93 million since its establishment. Through the funding that the organization has provided, various projects were kickstarted in Los Angeles and internationally, such as a recording studio that was started in partnership with the Salvation Army; a



Local church and ministry leaders gathered for the workshop hosted by KCCD. (Photo courtesy of KCCD)

music school in Colombia; and a skate park in Guatemala City.

One particular project that was highlighted was the assignment of a campus pastor at a school in Montreal, Canada, that was known for "troubled students," as they were described. The presence and influence of the campus pastor led to positive differences and improvements within the school to the extent that the school district decided to hire a campus pas-

tor for every school in Montreal.

In 2014, the foundation spent about \$1.15 million in giving grants, and over \$300,000 in scholarships. Among the projects that received grants included projects such as establishing a loan fund for rehabilitated sex workers and disabled individuals in a church in Kampala, Uganda; expanding a ministry in a prison for gang members and their families in Villa Nueva, Guatemala; building an evangelistic performing arts school in Bogota, Colombia; expanding an after school ministry in Compton, California; revitalizing a church in the South Bronx, New York; and establishing or expanding youth mentoring programs in various places all over the world.

"This is a unique grant where churches are solely funded," explained Im. "Churches do not need to show a track record or have a designated non-profit status, which lowers the bar for many churches to be able to apply."

Brian Bakke explained that the

foundation, which was started by his uncle and aunt (Dennis W. Bakke and Eileen Harvey Bakke), aims to "support the work of the kingdom around the world."

The foundation offers two types of grants for local church or ministry projects, Bakke said. The first is a discipleship grant, which funds a project for up to \$5,000, while the second is an evangelism grant. This second type of grant requires a contribution from a local church, and the foundation matches that contribution. Some evangelistic projects have been funded up to \$30,000. Some local church projects could also be funded for up to three years, but only the first year is guaranteed.

For both types of grants, a major qualification is that it must be requested for a new project, and the project must be located in one of the foundation's 'target cities,' which could be checked at the foundation's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visit [msfdn.org](http://msfdn.org).



Brian Bakke (left) explained the history of MSF and the funding process. (Photo: KCCD)

## L.A. City Council Member David Ryu: 'Decisions Are Made by Those Who Show Up'

BY RACHAEL LEE

The election of David Ryu as one of Los Angeles City's Council Members marked a moment in history as Ryu became the first Korean American to be elected into L.A. City Council. During his election campaign, Ryu was considered by many as an 'outsider' to local politics compared to his main opponent candidate, Carolyn Ramsay, who had worked for former Council Member Tom LaBonge. But Ryu was actively involved in community organizing and had experience in the Los Angeles County Supervisor's office prior to his candidacy. His various experiences working in the community and within the local system led to his decision to run for office, Ryu says.

The following is the interview in which Ryu shares his experiences and thoughts on civic engagement, among other issues.

**Q:** What specific experiences led you to become interested in becoming involved with politics?

**A:** After I came back to LA from graduate school (Ryu went to graduate school at Rutgers University for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I circulated my resume. A local elected official got her hands on it and offered me a job. At first I said no, because I wanted to work on the advocacy and activism side of things. I thought local officials were bad and corrupt because that's what you see in the media. But I decided I'd work there for two years just to see how the system works from the inside, so I can come back out and protest it — because I was so convinced that the system is inefficient and corrupt.

When I actually started working

there, I was blown away. I worked as the senior deputy for Los Angeles County Supervisor Yvonne Burke, and I got to experience a little bit of everything, from HIV prevention, mental health, homelessness, senior services. It was amazing. And it turned out, when elected officials have the will to do something, they actually have the power and resources to get it done.

After Burke retired, I went back into the non-profit realm. And I started to get disillusioned again. As much as we [Asian Americans] got involved, I still felt like we were voiceless. The Koreatown redistricting case was the last straw. I felt like the weaker, smaller communities weren't being heard. I wasn't necessarily fighting for the Korean American cause, but for everyone — every community that was so easily neglected.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not unique — it's always a struggle for new immigrants or smaller communities. But my mentors from way back would tell me, 'When you get fed up, you can give up, or step up.' And I just decided I'd step up.

**Q:** During your campaign, you said that 'phase 1' of your campaign was getting more people to register to vote, and emphasized how low voter turnout had been. You experienced firsthand the influence that increased voter turnout had.

**A:** You know what, during last year's elections, voter turnout increased by 25 percent. Every vote really counts. It's because people don't vote that they feel disconnected from the government, and the less you vote, all they have to do is just appease to a small segment of the community, and they

win. Decisions are made by those who show up.

I used to go to groups of voters who would host meet-and-greets, and I used to always say, 'This room will win or lose my election.' My election was so competitive, everyone projected I was going to win by five votes. And I said, 'In this room, we have 10 people. But I don't see this as 10 votes. Everyone has a significant other who they can talk to. That's 20. Everyone has a parent, or a grown child. That's 30 votes. And if you're so inclined to ask your neighbor to vote, that's even more.' I won the primary elections by 61 votes.

**Q:** How would you advise Korean American Christians with conflicting values across partisan lines in terms of how to vote?

**A:** I would say that in other elections, it was very hard to distill what the candidates really stand for, or which candidates make a better case. But this presidential cycle is very different. You have to think about what kind of leader you want for this country. The United States is a world leader — what kind of image do we want to project to the rest of the world? One of the candidates clearly plays to the politics of fear, is hyper-racist, discriminatory, non-inclusionary. You want to show the rest of the world what America is really about, so you should vote for who you think would be best fit for that.

I'm Christian as well, but you have to understand why there i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You have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what America was founded on. The first immigrants to the U.S., a majority of them, were people fleeing from religious persecution. So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was



(Photo courtesy of David Ryu's office)

based on tolerance. So we can't be hypocrites and say religious freedoms for Christians only — that's where the dichotomy comes in. The reason the first immigrants came to the U.S. was for inclusion — religious freedom for all regardless of who or how you worship. Religion is never the problem, it's man who is the problem.

**Q:** How would you say your faith has influenced your journey?

**A:** My campaign was a real long shot. I worked hard, my team worked hard — our victory wasn't by chance at all. It was lots of hard work, a lot of blood, sweat, and tears. But in another sense, I was very lucky. And I think God had a lot to do with it. He was watching over me. Some of the stuff that happened during the campaign, it was just a miracle.

During the campaign, people would say to me, 'How could you be so removed and be so OK with everything?' And I just said, 'I could only do as much as I can do. If I win, there was a plan for me to win, and if I lose, then there must be a reason why I lost. There must be a plan.'

## Thousands Gather to Worship at Harvest America 2016

Greg Laurie:  
'God has an

answer for your  
loneliness... and it  
is Jesus Christ'

BY RACHAEL LEE

More than 82,000 individuals gathered at the AT&T Stadium in Arlington, Texas on Sunday for Harvest America, an annual evangelistic event in which Pastor Greg Laurie of the Harvest Crusades speaks on the gospel. Hundreds of thousands more tuned into the event via livestream or radio / TV broadcasts, according to the organizers, and the event was remotely hosted in over 7,200 locations.

Of those who gathered at the stadium, over 6,000 individuals made a faith commitment in response to Laurie's message titled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which Laurie addressed feelings of loneliness and emptiness, and said that only Jesus is the solution.

The most Google-searched terms during nighttimes are "porn, lonely, and suicide," Laurie noted.

"Not a woman, not a man, not a drug, not an experience, not a possession will fill the emptiness inside you," he said. "God has an answer for your loneliness and it is Jesus Christ, his son."

"Your religious beliefs are not enough, either. You're not good enough on your own," Laurie added. "Jesus alone is uniquely qualified to bridge the gap between a holy God and sinful humanity."

Major Christian worship artists were present at the event, with Chris Tomlin and MercyMe leading a choir of some 2,500 individuals, along with Switchfoot and Lecrae.

Various notable local church leaders endorsed and promoted the event, including Dr. Jack Graham of Prestonwood Baptist Church, Matt Chandler of The Village Church, and Dr. Robert Jeffress of First Baptist Dallas. Over 4,000 local church members volunteered during the event to be counselors, ushers, and prayer room volunteers.

Donna Lee, 46, was one of 30 volunteers from her church, New Beginnings Community Fellowship in Cedar Hill. She told The Dallas Morning News that she hopes "that God moves the hearts of a lot of people to come to know him. If one more person comes to know Christ, it will be a success."

The event marks the first Christian event ever hosted at the AT&T Stadium.

Laurie is the senior pastor of Harvest Christian Fellowship, located in Riverside, and Harvest Orange County in Irvine, and heads the Harvest Crusades, a series of evangelistic event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1990. More than 5 million people have attended Harvest Crusades and over 450,000 people have responded to the events with faith commitments.

###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http://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http://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http://www.christcentralsc.com)



## New Bill Pushes for Non-Discrimination in Cal Grant Receiving Schools

BY RACHAEL LEE

A bill introduced in the California State Assembly would prohibit institutions that are found to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from receiving Cal Grants. The bill (AB 1888) was introduced by Assemblymember Evan Low (D-Silicon Valley) in mid-February, and would take effect beginning the 2017-2018 school year if passed.

There has already been a law in place prohibiting institutions that receive federal financial aid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Howev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s owned by religious organizations were eligible to apply for exemptions from Title IX, and maintain their eligibility

to receive federal aid.

AB 1888 includes a measure that would prohibit religious institutions from applying for or receiving those exemptions.

"This bill would require, commencing with the 2017-18 academic year, each Cal Grant participating institution, ... to certify ... that the institution shall not subject a student or employee of the institution on the basis of, among other things,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and that the institution shall not apply for, or receive, a waiver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from nondiscrimination requirements for the receipt of federal funds," the bill summary reads.

As of December 14, 2015, over 220 institutions have been granted reli-

gious exemptions from Title IX, including Biola University, Loma Linda University, Pepperdine University, and West Coast Christian College, all of which are located in California.

Of those, Biola, Loma Linda, and Pepperdine Universities are currently eligible to receive Cal Grants. Should AB 1888 pass, these institutions would be compelled to choose to either receive Cal Grants, or maintain their religious exemptions from Title IX. This means students who are accepted and wish to go to such schools would not be able to receive additional financial aid through the Cal Grant program, and institutions may face more financial constraints in the acceptance process.

The bill has been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on February 25.

## Supreme Court Restores Adoption Rights for Lesbian Woman in Alabama

BY RACHAEL LEE

The U.S. Supreme Court ruled in favor of a lesbian woman seeking visitation rights for her adopted children in an opinion released on Monday.

The opinion, which was unsigned and which had no noted dissents, stated that the adoption decree granted to the woman, which was granted by a Superior Court in Georgia, must be respected and cannot be invalidated in Alabama.

The case involved a lesbian couple identified as V. L. and E. L., who had a relationship and lived together in Georgia from 1995 to 2011. While living in Georgia, E. L. had three children with assistive reproductive technology. The couple decided to ensure legal parental rights for V. L., and V. L. received a decree of adoption as a second parent from the Superior Court of Fulton County, Georgia. To note, E. L. was present at the proceedings and gave consent to V. L.'s adoption without surrendering her own parental rights to the children.

(Second parent adoption, also known as co-parent adoption, is a legal process that allows a gay or lesbian individual to adopt the biological child of his or her partner, regardless of whether the couple is married, without requiring the biological mother or father to surrender all of his or her rights to the child as a parent.)

Later in 2011, however, after the couple moved to Alabama, they broke up, after which V. L.'s parental rights then came under question. V. L. initially was able to see the children, but when visitation soon became a problem, and she filed a lawsuit against E. L. in Jefferson County Family Court in Birmingham, asking the court to recognize the adoption decree she received in Georgia, which was granted.



(Photo: Roman Boed / Flickr / CC)

Thereafter, E. L. filed an appeal with the Alabama Court of Civil Appeals, and then with the Supreme Court of Alabama.

Alabama'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doption decree granted by the Georgia Superior Court was void due to the fact that it was not in accordance with one of Georgia's statutes which states, "a child who has any living parent or guardian may be adopted by a third party ... only if each such living parent and each such guardian has voluntarily and in writing surrendered all of his or her rights to such a child."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ruled on Monday that regardless of what the state statute says, it "does not speak in jurisdictional terms," meaning that that particular statute does not have the ultimate authority on matters related to adoption.

Instea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doption decree granted by the Georgia Superior Court must be respected because of a Georgia law which states that "the superior courts of the several counties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in all matters of adoption," meaning the Superior Courts in Georgia have the ultimate authority in all matters of adoption in the state. Therefore, the state of Alabama must

respect the decision made by Georgia's Superior Court according to the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in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stated.

"I have been my children's mother in every way for their whole lives," said V. L. in a statement. "I thought that adopting them meant that we would be able to be together always. When the Alabama court said my adoption was invalid and I wasn't their mother, I didn't think I could go on."

Though the case involves a lesbian woman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s been lauded by LGBT supporters and activists, some argue that the case had less to do with the woman's rights as a lesbian, but more on the idea of jurisdiction -- how much authority one court's ruling has in another court, and whether one state's court could invalidate the ruling of a court in another state.

"Neither the federal nor Alabama court opinions referred in any depth to the circumstances of the adoption or to the significant changes in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couples," wrote Jess Bravin of the Wall Street Journal. However, Bravin noted, Alabama's Supreme Court has been known to be in opposition to federal court rulings in favor of same-sex couples.

## Hundreds of Migrant Workers Saved from Forced Labor in India

*One phone call from former worker led to rescue of over 540 human trafficked workers in brick kiln; Six arrested in connection with crime*

BY RACHAEL LEE

About 550 individuals have been rescued from a human trafficking location in India on Wednesday, according to reports.

The group was rescued from forced labor at a brick kiln in Chennai by Indian police and staff of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focuses on combating human trafficking.

Six people have been arrested and detained, including the owner of the kiln. According to IJM, some 500 individuals were rescued from the same

owner and brick kiln in 2011; but during the first rescue mission, officials and others involved were unable to arrest the owner.

"The operation highlights a critical need in the fight against slavery: If criminals remain free, the violence will continue," stated IJM. "But if laws are enforced and traffickers go to jail, we can end slavery for good."

The rescue mission began when a former worker in the kiln was able to escape and call relatives about what he went through, and the relatives contacted officials.

Upon arrival, officials found almost

200 children living in the facility, almost half of which were under the age of 5.

Workers shared stories of the abuse that they faced while in the kiln. Laborers were forced to live in small rooms with tin roofs or tattered tents. Many had not eaten for days. A pregnant woman was forced to give birth in the kiln. And another woman was forced to keep working in the kiln instead of attending the funeral of her husband, who died during a trip to his home town.

Their work days began at 3 AM each morning. Laborers were paid less than six dollars (400 rupees) each week, and were not allowed to stop if they were injured or in pain.

"They pay Rs. 400 a family per week and we have to manage everything with that," a woman named Savitri told The Hindu. "Since Malik saab does not give us food, we fight it out in nearby ration shops to get rice at Rs. 5 a kilo."

Those who were rescued were taken to a wedding hall, where they were able to rest and officials were able to prepare documents and Release Certificates to officially recognize their freedom as well as the validity of what they had undergone as forced laborers.



Migrant workers worked in brick kilns like the one pictured for less than \$6 per week. (Photo: McKay Savage / Flickr / CC)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새 봄 맞이 SALE**

**HYUNDAI**  
**SEIZE THE MOMENT**  
**SALES EVENT**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Demo)**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3 In Stock With**  
**MSRP \$62,450**

Stock # G6106201 / G6104147 / G6101688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